

멕시코 에너지개혁과 시사점



목 차

요 약

I. 멕시코 에너지 개혁 배경 / 1

1. 개혁의 필요성
2. 현재 멕시코 에너지 산업현황

II. 에너지 개혁 분석 / 9

1. 에너지 개혁 개요
2. 분야별 개혁 내용

III. 향후 진행 방향 / 21

1. 단계별 계획
2. 향후 입찰 일정

IV. 개혁 이후, 우리기업 전략 / 28

요 약

- 멕시코는 2013년 기준 전 세계 10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1위 수출 품목 역시 석유임. 멕시코 전체 경제를 기준으로 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멕시코석유공사(PEMEX)는 멕시코 정부 세수의 1/3을 담당. 하지만 육상유전의 고갈, 기술과 투자 부족으로 심해 유전 및 신규 에너지원인 셰일가스 등의 개발이 어려워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멕시코는 1938년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한 이후,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민간의 참여가 금지되어 멕시코석유공사(PEMEX)와 멕시코 전력청(CFE)이 원유 탐사 및 발전에 있어 독점적 권력을 누림. 이는 방만 경영과 부패, 기술 개발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들 기관의 개혁과 에너지 산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에너지 개혁을 실시하게 됨
- 이번 에너지 개혁을 통해 국가가 독점하던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증대, 공공수익 증대를 꾀함. 또한 PEMEX와 CFE는 앞으로 석유 탐사 및 시추, 발전 분야에서 다른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경쟁하게 됨
- 특히 원유 분야는 탐사 및 시추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개방되는데 PEMEX는 라운드 제로(Round Zero)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광구를 지정 받았으며 그 외의 광구는 라운드 원(Round One)으로 분류, 2015년부터 입찰이 시작될 예정
 - 민간은 라이선스, 발생생산 분배계약, 발생소득 분배계약, 서비스 계약 등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됨
- 전력분야에서 민간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력 판매에 대한 권한도 부여 받게 됨. 멕시코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생산량 증대 및 품질 제고, 이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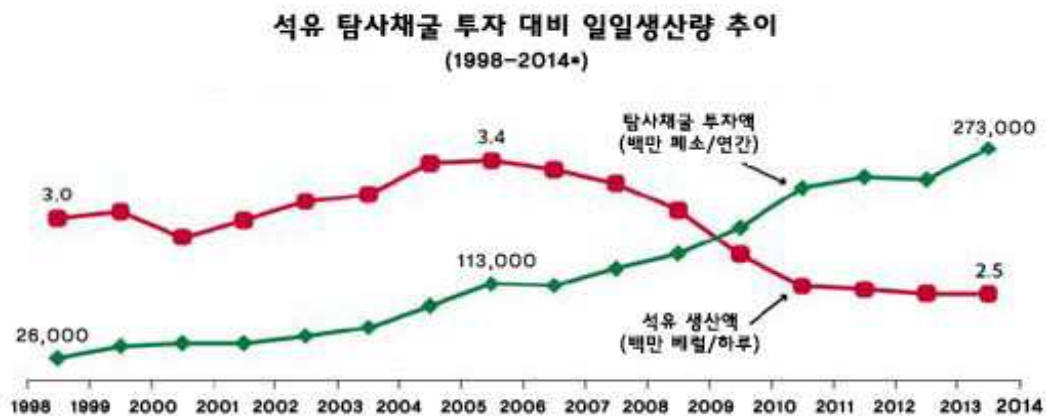
I. 멕시코 에너지 개혁 배경

1. 개혁의 필요성

□ 멕시코 정부의 투자액 증가대비 석유 생산량 감소

- 멕시코는 '13년 기준 전 세계 10위 석유생산국임.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석유 탐사를 위한 투자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석유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98년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3백만 배럴로 상대적으로 적은 탐사 및 채굴 투자액(260억 페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04년에는 일일 340만 배럴의 생산량을 기록해 사상최대치를 기록
 - '14년의 경우, 투자액은 2,730억 페소에 달했지만 일일 250만 배럴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등 생산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석유 탐사채굴 투자 대비 일일생산량 추이



주: 1달러 ≙ 12.8페소, '14년 10월 기준

※ 자료원 : 멕시코 에너지부 2014 (1997년 ~ 2014년)

-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 최대의 유전인 칸따렐(Cantarell)에서의 생산량 감소에 기인함
 - 칸따렐 유전의 경우, 1970년대 중반 발견되었을 당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유전으로 꼽히기도 하였지만 '04년 일일 204만 배럴의 생산량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PEMEX는 현재 멕시코 세수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세수원임. 멕시코 원유의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어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멕시코 혼합유(Mezcla) 수출단가

단위: 1배럴 당 달러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가격	13	10	16	25	19	22	25	31	43	53	61	86	57	72	101	103	103	53

주 *14년은 11월 수치

※ 자료원: PEM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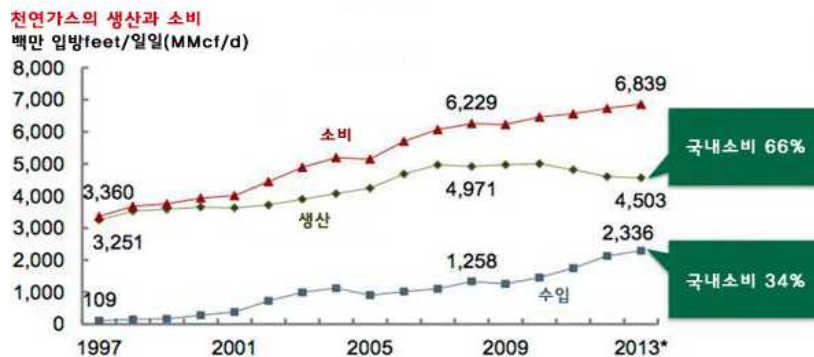
- 하지만 멕시코의 석유생산량 감소는 전체적인 매장량 고갈보다는 기술과 투자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대부분의 석유를 생산하던 육상유전과 천해유전의 경우 높은 기술이나 큰 투자를 요하지 않았으나 점차 이곳에서의 매장이 고갈되며 심해 유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에너지 국유화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가 금지되어 멕시코 자체 기술로는 심해유전의 개발이 어려워 PEMEX의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

□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량 감소

- 멕시코 산업부문에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산업 연료 전체 사용량의 57.4%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전력 생산에 있어 천연가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천연가스의 일일 소비량은 '97년 소비량은 33억 입방피트에서 '13년 68억 입방피트로 대폭 증가
- 반면 '97년 멕시코는 총 소비량의 3%만 수입할 정도로 천연가스 자체 공급이 충분했지만 '13년의 경우 전체 소비량의 34%에 달하는 부분을 수입하고 있음
 - 이는 에너지 생산을 독점하는 PEMEX가 영업 이익이 높은 석유 생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며 영업 이익이 낮은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투자에 소홀히 했고 가스를 수입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임

* 석유 영업 이익: USD \$80/1배럴, 천연가스 영업 이익: USD \$0.50/백만 Btu

천연가스 소비량대비 일일생산량 추이



○ PEMEX는 크게 2개의 주요 천연가스 수송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소비량에 비해 수송용량이 부족한 상황임

① 국가가스수송관 시스템(SNG, Sistema Nacional de Gasoductos, 수송량 : 일일 50억 입방피트)

② Sonora주의 Naco-Hermosillo 구간 수송관(수송량 : 일일 9천만 입방피트)

- 수송관의 최적가동률은 85%이나 현재는 93%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 생산 또는 수입 거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천연 가스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

- 특히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흰색 수송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멕시코의 중서부, 남부의 천연가스 공급이 취약한 상황임

* 멕시코는 전체 가스의 70%가 넘는 부분을 북부수송관을 통해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CFE는 현재 모자란 가스관 확충을 위해 민간 가스수송관 건설을 추진함

멕시코 천연가스 수송관 현황



※ 자료원 : 멕시코 천연가스 협회(Asociacion Mexicana de Gas Natural, 2010)

□ 부족한 전력 생산, 높은 전력 단가

- 멕시코는 '13년 기준, 64,860 MW의 전력 설비량을 갖추고 있으나 향후 15년간 50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12년 기준 산업용 전력 단가는 114.74달러/MWh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미국 대비 73% 비싼 수준임.
 -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활용, 미국을 겨냥한 제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미국보다 높은 전력단가가 장애물로 작용
- 멕시코는 정부에서 상당한 부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천연가스 및 디젤유 가격의 상승, 멕시코 전력청(CFE)의 각종 규제 등으로 전력단가가 높아짐

□ 기타

- 멕시코는 110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 12조 입방 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 545조 입방 피트의 셰일 가스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음¹⁾
 - 하지만 신규 유전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셰일 가스 채굴에 필요한 기술 역시 없는 상황
 - * 현재 PEMEX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광구가 없음
 - 또한 충분한 원유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정유 기술이 부족해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는 구조
 - 이에 PEMEX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력과 민간 자본의 도입을 통해 심해 유전 및 셰일 가스 개발을 추진해야 함
- PEMEX의 부정부패 및 방만경영, 기술개발 부진 역시 에너지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 에너지개혁을 통한 PEMEX 개혁필요성도 대두
- 석유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했던 브라질과 콜롬비아 역시 에너지 개혁 이후 석유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 바 있음
 - 브라질 : 에너지 및 가스 민영화, 전기생산 및 분배에서 주(州) 독점권 폐지
 - 콜롬비아 : 석유산업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민간 투자 장려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개혁 후 석유 생산량 추이



※ 자료원 : Pemex,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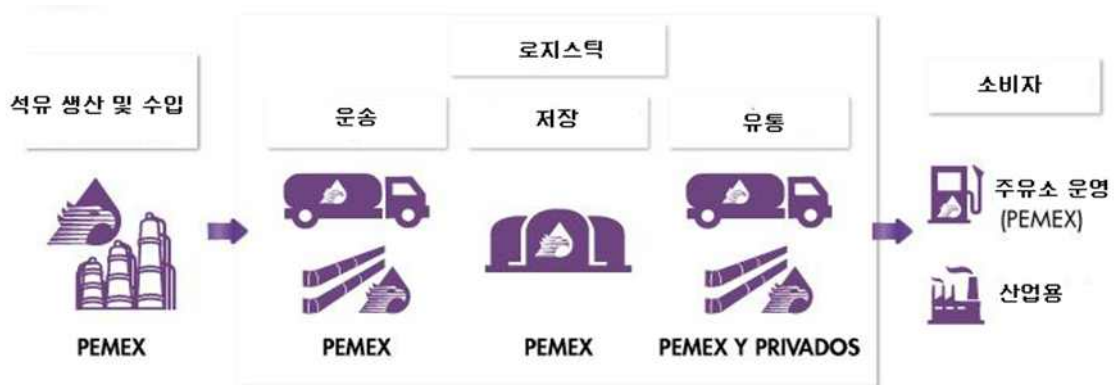
1) 자료원 : 원유 및 천연가스 - PEMEX Annual Report 2013, 셰일 가스 - 미국 에너지 정보국 2014

2. 현재 멕시코 에너지 산업현황

□ 국가의 에너지 산업 독점

- 1938년 라사로 카르데나스(Lazaro Cardenas) 대통령은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며 멕시코석유공사(PEMEX)를 설립하고 멕시코 에너지산업에 민간참여를 전면 금지
 - 이후 1960년 아돌포 로페즈 마테오(Adolfo Lopez Mateos) 대통령이 헌법 27조를 재개정하며 석유 생산, 수입, 운송, 저장, 유통, 주유소 운영 등 모든 관련 활동을 PEMEX로 집중시킴
- 국영화 이후, 시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지며 기술 개발 미비, 지표면 인접 원유 고갈, PEMEX의 부정부패 및 방만 경영으로 자원생산량이 매년 감소
 - 멕시코 에너지 구축·성과지수²⁾는 2012년 전 세계 124개국 중 36위를 차지
 - 원유생산은 '06년 6위에서 '12년 10위로 하락하였으며 천연가스 생산은 '06년 14위에서 '12년 15위로 하락

개혁 전 PEMEX의 석유 산업 독점 상황



- 한편, 멕시코 전력 공급 및 송배전 사업, 국가전력망 운영은 멕시코전력청 (CFE)이 독점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불가능했음
 - 이로 인해 CFE 역시 부정부패 및 방만 경영에 시달리며 송배전시설이 낙후 되었으며, 멕시코 전력은 대부분 고가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되어 산업용 전력 요금이 미국 보다 높아지게 됨
 - * 멕시코 송배전 시스템 중 47%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

2) World Economic Forum 발표

□ 멕시코 에너지 분야 주요 플레이어(국내 및 해외)

- 제일 대표적인 기업은 PEMEX로 생산, 수입, 정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은 주로 PEMEX의 기술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활동

1) 석유 · 가스

① PEMEX(멕시코석유공사, 멕시코, 1938 설립)

- 업무 분야 : 멕시코 에너지 탐사 및 개발, 정유 독점
- 특징 : 멕시코 내 최대 석유 회사.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회사로 에너지 개혁 전 석유 및 가스관련 생산, 수입, 정유 등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함
- * 석유화학분야는 1981년부터 사업 시작

② Repsol(스페인, 2003년 진출)

- 주요 프로젝트 : 2003년 Pemex 멕시코 가스정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 참여. 현재 Reynosa-Monterrey 블록을 운영
- 특징 : 멕시코 내에서 석유탐사 활동에 참가하게 된 첫 번째 기업

③ Royal Dutch Shell(네덜란드, 1954년 진출)

- 주요 프로젝트
 - '03년 9월 멕시코 북동부 연간 52억m³ 용량의 천연 가스 공급 사업(15년간 운영권 획득)
 - '04년 Sempra Energy와 LNG 공급계약 체결. Baja California에 위치한 Costa Azul 공장에 20년간 LNG 공급
 - '06년 10월 Altamira에 천연가스 액화 및 재 기화 터미널 완공

④ British Petroleum(영국, 1960년 진출)

- 특징 :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 각종 석유정제제품과 또한 천연가스 사업에서 업계 선두를 차지

⑤ Exxon Mobil(미국, 2007년 진출)

- 특징 : 지주회사를 통해서 멕시코에서는 125년 전부터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유탄유산업, 항공산업, 해양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유통선 보유

⑥ **Petróleo Brasileiro**(PETROBRAS, 브라질, 2003년 진출)

- 특징 : 멕시코 북부 천연 가스 탐사 운영사로 멕시코에서의 활동을 시작
 - 천연가스 탐사활동 이외에 천연가스 생산(채굴),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운영
 - PEMEX와 석유 및 가스분야 과학기술 협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탐사, 시추 그리고 심해분야 등에서 협업을 하고 있음

⑦ **Enagas**(스페인, 2011년 진출)

- 주요 프로젝트
 - 멕시코 최대 규모 천연가스 수송관 프로젝트인 Los Ramones의 2단계 현대화 작업 협약 체결
 - Tlaxcala주에서 Morelos주를 잇는 160km의 가스 수송관 입찰에 낙찰됨
 - 멕시코만에 위치한 Altamira 재기화처리 시설 참여(40% 지분투자)

2) 전력분야

①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CFE, 멕시코, 1879년 설립)

- 멕시코의 발전, 송전, 배전 등 전기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멕시코 국영기업임. 현재 CFE는 51G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224개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음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는 CFE에 판매되고 있음

② **Iberdrola**(스페인)

- 특징: 민간 전기생산업체로 5.8GW 용량으로 에너지 부문의 유력 회사로 멕시코에는 풍력발전에 강점을 보임(멕시코 전역에 6개 풍력발전소 운영)

③ **Unión Fenosa**(스페인, 1997년 진출)

- 특징: 스페인의 가스 분야 기업으로 멕시코에서는 발전사업에 참가. 현재 2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4기 운영

II. 에너지 개혁 분석

1. 에너지 개혁 개요

□ 법률 개정

- 멕시코는 2013년 12월 20일, 멕시코 헌법 27조를 개정하며 에너지개혁을 선언. 과거 국가가 독점하던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생산량 확대를 목표로 함

변경된 멕시코 헌법 27조

The property of all land and water within national territory is originally owned by the Nation, who has the right to transfer this ownership to particulars. Hence, private property is a privilege created by the Nation.

Expropriations may only be made when there is a public utility cause.

The State will always have the right to impose on private property constraints dictated by "public interest". The State will also regulate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based on social benefits and the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The state is also responsible for conservation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All natural resources in national territory are property of the nation, and private exploitation may only be carried out through concessions.

Nuclear fuel may only be exploited and used by the State. The use of Nuclear elements in the Nation may only have peaceful purposes (i.e., Mexico cannot build nuclear weapons).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other subtleties on what constitutes Mexico's territory.

Foreign citizens cannot own land within 100 km of the borders or 50 km of the sea; however, foreigners can have a beneficial interest in such land through a trust (fideicomiso), where the legal ownership of the land is held by a Mexican financial institution. The only precondition sine qua non to granting such a beneficial interest is that the foreigner agree that all matters relating to such land are the exclusive domain of Mexican courts and Mexican jurisdiction, and that in all issues pertaining

to such land, the foreigner will conduct him or herself as a Mexican, and settle any issues arising from their interest in such land exclusively through Mexican courts and institutions. The stipulated consequence of a failure to abide by these terms is forfeiture to the nation of their interests in all lands where the foreigner has such beneficial interests.

That an area of land next to the coast (20 meters from the highest tide line) is federal property which cannot be sold to particulars.

- 2014년 8월 12일, 헌법 27조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2차 법안을 발표
 - 9개 법안을 신규제정하고 21개의 기존법안을 개정하며 멕시코의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꾀함

주요 법안 및 내용

- ▶ **탄소법(Ley de Hidrocarburos)** : 석유와 가스에 대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
- ▶ **탄화수소 이익에 대한 법(Ley de ingresos sobre hidrocarburos)** : PEMEX와 민간 사업자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세제를 규정
- ▶ **멕시코 석유사업 안정화 및 개발 기금법(Ley del Fondo Mexicano del Petroleo para la Estabilizacion y Desarrollo)** : 정부에 자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자원활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탁(trust)
- ▶ **전력산업법(Ley de Industria Electrica)** : 기존에 있었던 법안에서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전력 판매에 대한 규정을 추가
- ▶ **지열에너지법(Ley de Energia Geotermica)** : 지열 프로젝트는 과거 CFE에서 집행하였으나 신규법 제정으로 컨세션을 통한 민간 프로젝트로 진행이 가능해짐. (멕시코는 지열에너지에 있어 전 세계 4위를 차지)
- ▶ **멕시코석유공사법, 멕시코전력청법, 에너지산업규제기관법(Ley de Petroleos Mexicanos, Ley de Comision Federal de Elctricidad, Ley de los Organos Reguladores Coordinados en Materia Energetica)**: 이 세가지 법들은 PEMEX, CFE와 신규 설립될 규제 기관들에 대한 법령을 규정

- 이번 개정을 통해 멕시코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
 - ①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
 - ② 관련분야 산업경쟁력 및 성장률 증대
 - ③ 관련분야 고용 증대
 - ④ 에너지 분야 공공수익 증대

□ 관련기관 재정비 : PEMEX와 CFE의 변화

- 에너지개혁의 핵심은 멕시코석유공사(PEMEX), 멕시코전력청(CFE)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 작업임. PEMEX와 CFE의 주주가 국가인 것임에는 변화가 없으나, 전문 경영진 도입 등 민간 기업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하여 경영하게 됨
 - 각 기관의 역할 재정비를 위한 법안과 ‘공공분야 취득, 임대, 서비스관련 법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úblico)’, ‘공공사업법 및 공공사업관련 서비스(Ley de Obras Públicas y Servicios Relacionados con las Mismas)’이 개정되었음
 - 이번 개혁을 통해 양 기관이 더 자치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조직이 될 것을 기대
- PEMEX와 CFE는 앞으로 국영 회사(Empresa Estatal)가 아닌 국영 생산회사(Empresa Estatal Productiva)로 분류
 - 이들은 과거의 독점적 권력을 상실하고 석유 탐사 및 시추, 발전 분야에서 기타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경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함
 - 또한 앞으로 민간과 제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경영 활동에서의 위험을 경감할 수도 있음
 - PEMEX와 CFE는 자체적인 예산결정권을 가지며 정부는 각 기관이 건전한 재정 상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용계약 재구조화를 지원 예정
 - 감시 및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부정부패관련 새로운 관리원칙과 체계 확립
 - 양 기관에 납품하는 공급업자 및 계약자의 정보와 급여테이블, 퇴직 연금, 직원 대출 등의 정보를 대외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예정

□ 에너지관련 규제기관 신설 및 기존기관 기능변경

- ‘에너지 분야 규제기관에 대한 법’을 통해 규제기관을 신설하여 1)에너지 분야에 있어 국가의 리더십을 강화하며 2)에너지 분야 생산성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 3)산업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안전을 확립하고자 함
 -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독점으로 인해 방만 경영되고 있는 멕시코의 주요 국영기업 PEMEX, CFE의 기득권을 없애는 것임

- 규제 관련 주요 기구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 규제, 감독, 검사 및 제재 활동을 수행하며 특정 권한 부여권, 각종 허가권 등을 갖게 됨 (운송, 저장, 배급 등). 두 기관의 예산은 대외 공개되고 재무부의 감독을 받음
 - ① **국가탄화수소위원회**(CNH, Comision Nacional Hidrocarburos): 입찰 시행, 입찰자 선정, 계약서 서명 및 기술적 관리, 계약 진행 감시
 - ② **멕시코에너지감독위원회**(CRE, Comision Regulatoria de Energia): 천연가스 배관 시설 접근에 관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통합 가스수송 시스템 승인, 각종 허가권, 운영 규칙 제정 등)
 - CRE는 기능이 변경된 사례로 개혁 전에는 멕시코의 에너지 산업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특히 멕시코 에너지법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에 민간 자본 투자를 심의, 허가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전력 요금 결정에 참여
- 또한 산업 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설립법(Ley de la Agencia Nacional de Seguridad Industrial y de Protección del Medio Ambiente en el Sector de Hidrocarburos)'을 통과하고 '산업안전 및 환경보호원(Agencia Nacional de Seguridad Industrial y de Protección del Medio Ambiente)을 설립, 환경 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안전에 위배되는 작업, 시설, 시스템 등을 일시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

2. 분야별 개혁 내용

□ 석유 및 가스



- 이번 개혁을 통해 과거 국가가 독점하던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생산, 운송, 정유, 저장, 수출입 등의 모든 부분을 민간에 개방함
 - 지하에 매장된 자원의 소유권은 개혁 전과 동일하게 국가에게 있으나 민간이 탐사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 지하는 육지, 배타적 경제수역 모두를 포함하며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사용된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소유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함
 - 또한 PEMEX가 국내외 공공·민간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허용
- 멕시코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정유소에 투자를 할 수 있음. 하지만 멕시코 내에 정유소를 설립하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정유소에 투자해 미국에서 정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평가. 멕시코 정부 역시 정유소 프로젝트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개혁 이후 원유 탐사 및 시추는 지정(Asignaciones)과 계약(Contratos)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정의 경우 PEMEX, PEMEX의 자회사 등 PEMEX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
 - 지정 프로젝트의 경우, 원유 탐사 및 시추에 있어서 국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PEMEX는 기존과 같이 민간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단, 지정 프로젝트의 경우 수행 주체(PEMEX)가 탐사 및 생산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계약으로 넘어가게 됨
 - * 지정의 경우 라운드 제로(Ronda 0)로 진행되며 계약의 경우 라운드 원(Ronda 1)에 포함
- 멕시코는 탄화수소 개발을 위한 민간과의 계약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발생소득 분배계약(Utilidad Compartida), 발생생산 분배계약(Produccion Compartida), 라이선스³⁾(Licencias), 서비스계약(Servicios), 복합적 계약(Combinacion)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종료될 수 있음
 - 1) 탐사 및 개발관련 계약상 조건을 미충족 한 경우
 - 2) 계약 시 국가와 맺은 지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주민 또는 환경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 4)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계약은 모두 국가탄화수소위원회(CNH)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하며 에너지부(SENER)와 재무부(SHCP)에서 각각 기술적, 경제적 자격 요건을 규정
- 국가는 허가된 계약에서 다수의 유전이 발견되거나,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국가차원에서 경제적 이슈가 있을 경우 계약에 직접 관여 가능

3) 라이선스(Licencia) : 과거의 컨세션(Concesion)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

민간 계약 종류별 세부 내용

□ 계약 유형

유형	정부	계약자
라이선스 계약	현금지급분: • 계약성사금(Bono a la firma) • 탐사계약 요금 • 사용료(Royalty) • 탄화수소 계약가치세 • 탐사 및 채굴세	• 탄화수소에 대한 소유권 (채굴 후)
발생소득 분배계약	• 탐사계약 요금 • 사용료 • 영업이익세 • 탐사 및 채굴세	• 선택적비용 회수 • 영업이익 잉여금
발생생산 분배계약 *현물지급	• 탐사계약 요금 • 사용료 • 영업이익세 • 탐사 및 채굴세	• 선택적비용 회수 • 영업이익 잉여금 • 순 생산
서비스계약	• 총 생산	• 현금액

□ 용어의 경제적 개념

① 계약성사금(라이선스계약)

- 현금지급액
- 계약체결 또는 지정(Asignaciones)에서 라이선스료의 이관으로 발생
- 지급조건은 재무부가 정함

② 탐사계약요금

- 생산단계에 있지 않은 구획에 대해 매달 지급하는 요금(소비자물가지수 반영 매년 산정)

계약기간	월 요금
최초 60개월	1,150페소 X Km ²
61개월~상업적 개발	2,750페소 X Km ²

- 계약체결 이후부터 지불
- 탐사에서 생산단계로의 빠른 이전이 가능(장기독점 불가)
- 계약과 연관 ≠ 토지세와 연관

③ 사용료

- 기간별 일정 금액(월별 또는 계약에서 정함)
- 해당 생산물의 계약가치에 대한 비율

(단위: USD)

계약가치	산정 공식	비율
석유	계약가격 < 배럴당 \$48	7.5%
	계약가격 ≥ 배럴당 \$48	[(0.125 x 석유 계약가격) - 1.5]%
수반가스	N/A	계약가격/100
비수반가스	계약가격 ≤ 배럴당 \$5	0%
	계약가격 > \$5/MMBTU < \$5.5/MMBTU	$[\frac{(CP - 5) \times 60.5}{CP}] \%$
콘덴세이트	계약가격 ≥ \$5.5Dis/MMBTU	계약가격/100
	계약가격 < 배럴당 \$6	5%
	계약가격 ≥ 배럴당 \$60	[(0.125 x 석유 계약가격) - 2.5]%

* 계약가격 : 기간별 측정단위당 미화금액

- 기준 : 계약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장가(해당 산정공식을 계약에 명시)
- 고려 변수 : API 등급, 품질, 유황함유율, 판매비용, 수송비 등

④ 탄화수소 계약가치(VCH)

$$VCH = \text{석유 계약가치} + \text{천연가스 계약가치} + \text{콘덴세이트 계약가치}$$

$$VC(\text{계약가치}) = \text{계약가격} \times \text{물량(인도지점, 측정 또는 감사)}$$

- VCH와 VC 모두 매 기간마다 산정
- 물량(Volume)은 국가탄화수소위원회(CNH)의 방침에 따라 측정

⑤ 영업이익(이익공유계약/생산공유계약)

$$VCH - \text{사용료} - \text{비용회수}$$

- 매 기간마다 산정
- 계약자 선정 시 고려변수
 - VCH 또는 영업이익(입찰별로 상이)
 - 입찰자가 제시한 투자액
 - 앞서 명시한 변수들

⑥ 비용회수(이익공유계약/생산공유계약)

- 재무부 방침 및 계약상 회계지침에 따라 각 기간별 인식된 경비, 지출 및 투자의 합
- 탄화수소 이익에 대한 법(LISH)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인식되지 않음
- 한도초과분은 차기에 지급(이월)

⑦ 공제

- 일부 투자에 대해 특별제도 적용(소득세법(LISR)상의 비율 미적용):

발생연도 원금의 100%(비용)	탐사 투자, 이차회수 및 고차회수, 자산화 불가한 유지비
매 회계연도 원금의 25%	유전 개발 및 이용
매 회계연도 원금의 10%	생산물 인도를 위한 저장 및 수송인프라

- 공제원칙

- 이월(Carry Forward) : 해당 기간의 한도초과분(재무부) → 다음 기간
- 공제액은 투자 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비공제항목 리스트

- 재무비용
- 용익권, 도로점용권, 임시 또는 상시 점유, 토지 임대 또는 매입 혹은 기타 유사한 사항에 따른 경비 및 지출
- 위험관리 규정 등 제반 규정 불이행에 따른 비용
- 장비 보증조건 불이행 또는 그러한 조건 미수립에 따른 비용
- 자체 기술이용에 따른 경비, 지출 및 투자 (기술이전비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자금조달금 또는 준비금으로 기록된 금액(시설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
- 계약자가 연관된 중재 또는 분쟁에 따른 법률비용
- 사용료 및 탐사계약 요금 명목으로 소요된 경비
- 계약상 경비, 지출 및 투자 기준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수준의 기준가 또는 시장가를 상회하는 경비, 지출 및 투자
- 기타 각 계약별 특징에 따라 명시한 항목 및 재무부가 정한 항목

※ 자료원 : MCM Abogados 발표자료, 2014

□ 계약과 관련한 기타 고려사항

- 계약인은 매달 탐사 및 채굴(E&E) 활동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함
 - 탐사 : 1,150페소/Km² 채굴 : 6,000페소/Km²
- 국가탄화수소위원회의 인허가 대상
 - 탐사광구, 심해·초심해 광구 및 설계광구 시추
 - 탄화수소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면 인식 및 탐사
-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권, 탐사 및 채굴 계약, 인허가 모두 공개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가스관 건설 및 석유·가스광구 시추 분야에도 외국인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함
- 각 탐사 및 채굴 계약별로 계약 당사자들이 달성해야하는 로컬 콘텐츠 비중이 명시되며 해당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25년까지 35%로 증가 전망
 - * 심해·초심해 광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제부에서 해당 비율을 정하게 됨
- 프로젝트 내 해당 토지사용 조건에 대해 토지(물권, 국유토지권, 공유토지권) 소유주 또는 명의인과 협상필요
 - 계약인은 소유주 또는 명의인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 효과, 예상결과 및 영향에 대해 고지해야 함
 - 반대급부는 다음의 요건을 반영하여 현금 또는 다른 형태로 지급
 - 1) 현재의 활동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영향, 피해 및 손실
 - 2) 임대 사용 또는 용익에 따른 소득
 - 3) 상업적 채굴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인의 수익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 : 0.5%~3%-비수반가스, 0.5%~2%-기타 생산물
 - 계약은 권리 및 의무와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나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은 미포함
 - 당사자들이 역일 18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계약인은 민사법원 또는 농사법원 용익권 설정을 요청하거나 농업토지도시개발부(SEDATU)에 중재개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전력 분야 개혁내용

- 전력 분야 개혁의 핵심은 발전과 전력 판매를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것임
 - 다만, 송배전과 국가전력시스템(SEN, Sistema Electrico Nacional)의 기획 및 컨트롤은 국가가 독점권을 유지
 - CFE는 향후 PEMEX와 같이 시장에서 다른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며 발전 프로젝트 입찰에 응해야함
 - * 일반 가정용 전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CFE에서 독점 생산
- 전력분야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전력 생산량 증대를 꾀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임
 - 전기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공급량 증대와 서비스지역 확대를 통한 전기요금인하
 - 전기 생산 및 상품화는 시장경쟁체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 1 MW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는 회사는 CENACE에서 운영하게 될 전력 도매시장에서 공급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
 - 소전력 생산자(근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양성정책을 시행
 - 멕시코에너지감독위원회(CRE)에서 제공할 “청정에너지 인증” 제도로 전기를 생산해 공해배출을 감소한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청정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
- 에너지통제 국가센터(CENACE: Centro Nacional de Control de Energía)는 과거 CFE가 지녔던 행정적인 부분들을 모두 담당하게 되며 국가전력시스템 역시 관장
 - CENACE는 경제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전력을 제공하는 한편, 전력자원에 대한 접근을 개방할 예정

□ 가스분야 개혁내용

- 멕시코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총 18개의 가스 수송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수송용량 및 공급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 멕시코는 천연가스 수송관의 수송용량 부족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멕시코 중서부, 남부 지방은 타 지역에 비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CENAGAS를 신설하여 기존 PEMEX Gas가 수행하였던 운반 및 저장 기능을 담당하게 됨
- 1차적으로는 2014년 하반기 최소 5개의 가스관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6~2018년 사이 순차적 완공을 목표로 함. 총 투자액은 1,700억 페소 (약 130억 달러)규모

2015 천연가스 수송관 확대프로젝트



※ 자료원 : 멕시코 에너지부, 2014

III.

향후 진행 방향

1. 단계별 계획

□ 개관

- 에너지개혁으로 인해 멕시코 석유 시추 및 개발 사업이 민간에 개방되었으나, 모든 지하자원이 개방된 것은 아님. 멕시코 정부는 PEMEX에 우선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광구의 시추 및 탐사를 지정하고(Round Zero, 스페인어 : Ronda Zero) 그 이외의 광구들에 대해 민간계약을 통해 시추 및 탐사를 진행 할 예정(Round One, 스페인어 : Ronda Uno)
- 멕시코 내 자원매장량은 Reserva(Reserve) 1P, Reserva 2P, Reserva 3P, 탐사 자원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P(Proved Reserves, 확인매장량): 최소 90% 이상의 채굴 가능성 존재
 - 2P(Proved & Probable Reserves, 예상/확인매장량): 최소 50% 이상 채굴 가능성 존재
 - 3P(Proved, Probable & Possible Reserves, 예상/확인/추정매장량): 최소 10% 이상의 채굴 가능성
 -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자원이 발견 되지는 않았으나 원유 발견 가능 지역으로, 장래 탐사 프로젝트를 통하여 채굴이 가능한 지역. 이는 다시 일반지역(Conventional)과 특수·심해지역(No conventional y Deep Sea water)로 나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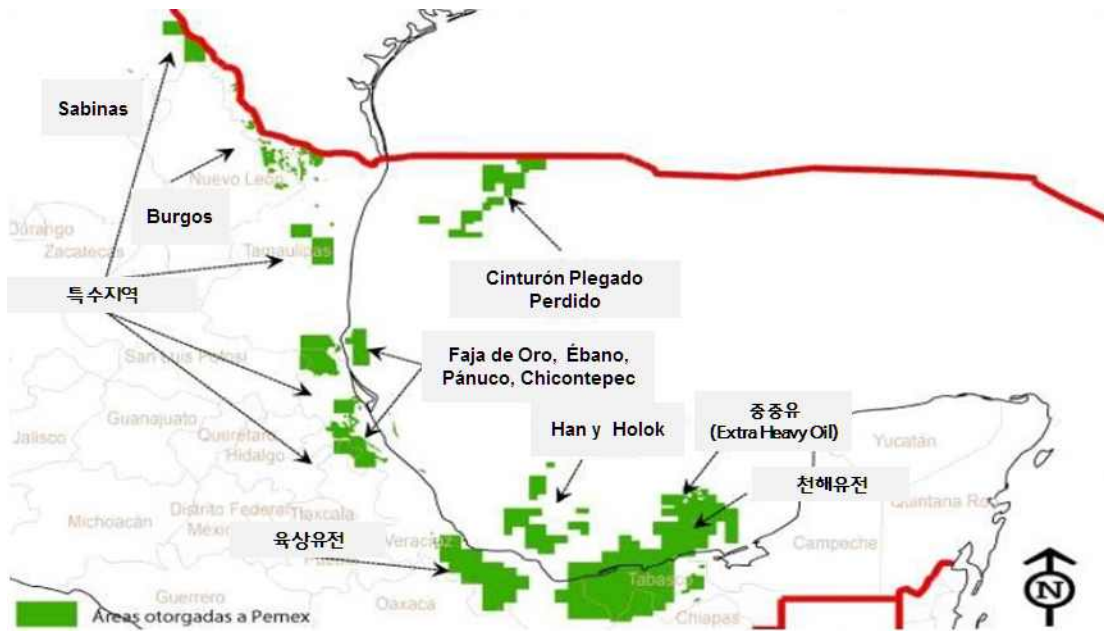
□ 라운드 제로(Round Zero, Ronda Cero)

- PEMEX는 라운드 제로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원유 시추가 가능한 유정 120개를 지정 받았으며, 이에 대한 시추 및 개발 사업은 PEMEX만 수행가능
 - 해당유정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고, 수익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현재 석유 생산량의 71%, 천연 가스 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 라운드 제로에 포함되는 광구들은 PEMEX에서 선정을 하고 멕시코 에너지부에서 승인함
 - 향후 '15~'18년간 매년 41억불 가량의 투자를 예상

라운드 제로 배정 결과

구분	배당량(백만 배럴)	배당 면적(km ²)	가채년수
매장량(1P,2P)	20,589	17,010	15.5
탐사자원량	23,477	72,987	5.0

라운드 제로(Round Zero) 포함 광구 위치 및 매장량



주요유전이름	위치	매장량/탐사자원량 (단위 백만 BEP)	
		매장량	탐사
Cinturón Plegado Perdido	심해, 멕시코만 북부	3,013	탐사
Han y Holok	심해, 멕시코만 남부	397	2P
		1,824	탐사
Burgos & Sabinas	육상유전, 멕시코 북동부	425	2P
Faja de Oro, Ebano, Pánuco, y Chicontepec	육상유전, 멕시코 북동부	3,815	2P
육상유전	멕시코만 남부연안	4,579	2P
		5,913	탐사
천해유전, 해양유전, 중중유	멕시코만 북부, 남부	11,374	2P
		7,472	탐사
특수지역	육상유전 멕시코 동부, 북부	3,904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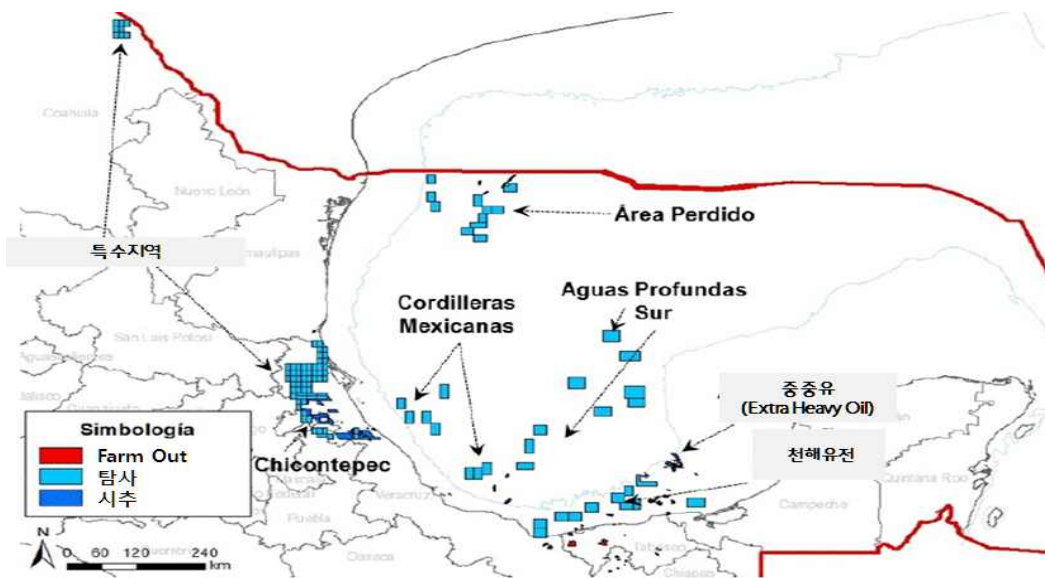
※ 자료원 : 멕시코 에너지부 및 외신 종합, 2014

- PEMEX가 확보한 라운드 제로 지역에는 2P 지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라운드 원에도 참여할 수 있어 앞으로의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실제로 PEMEX는 전체 2P 지역의 83%, 멕시코 전체 예상 자원의 21%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향후 20.5년 동안 평균 일일생산량 250만 배럴을 확보

□ 라운드 원(Round One, Ronda Uno)

- 라운드 원 지역은 라운드 제로에 포함되지 않은 탐사 및 채굴 지역
 - 라운드 원에서는 총 169블록에 대한 탐사 및 채굴 지역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109개는 탐사 지역, 60개는 채굴 지역으로 분류
 - 라운드 원에 속한 지역의 총 면적은 28,500km²이며 그중 91%가 탐사, 9%가 생산에 해당하며 향후 4년 간 매년 85억불의 투자를 예상함

라운드 원(Round One) 포함 광구 위치 및 매장량



주요유전이름	위치	매장량/탐사자원량 (단위 백만 BEP)	
Area Perdido	심해, 멕시코만 북부	1,591	탐사
Aguas Profundas sur	심해, 멕시코만	3,222	탐사
Chicontepec	특수지역, 육상유전 멕시코 동부	2,678	2P
		8,927	탐사
육상유전, 천해유전, 중중유	멕시코만 남부	1,204	2P
		724	탐사
특수지역	육상유전, 멕시코 북부	142	탐사

※ 자료원 : 멕시코 에너지부 및 외신 종합,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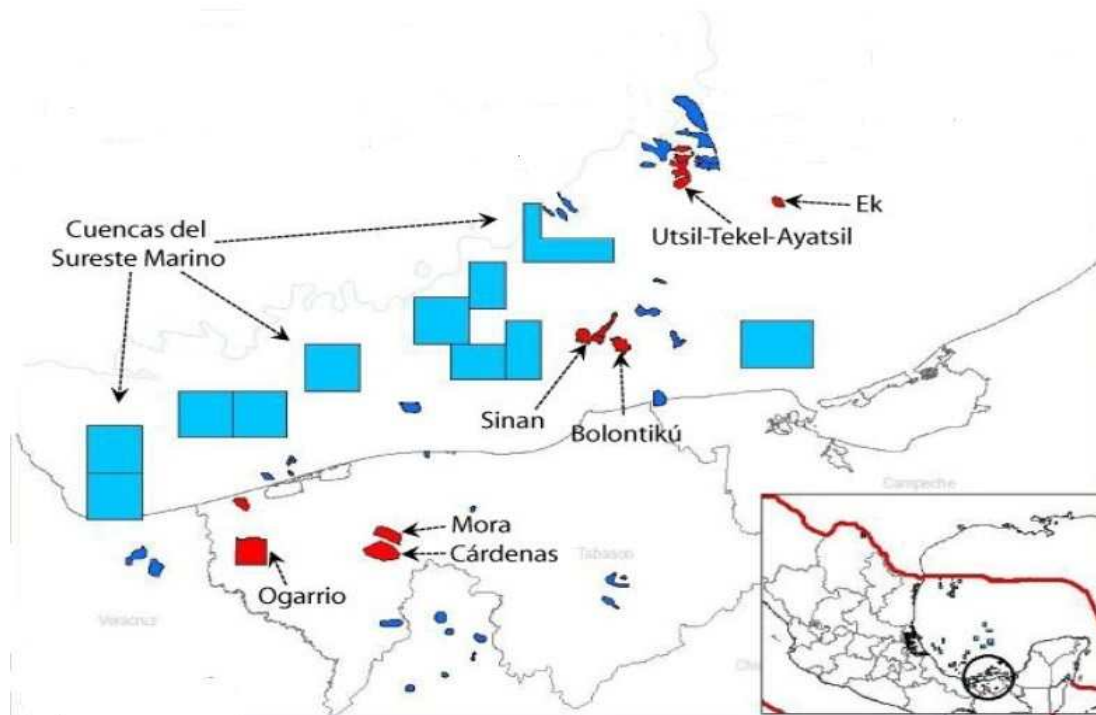
- 라운드 원 부문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공개 입찰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때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함. 이미 라운드 제로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한 PEMEX 역시 라운드 원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멕시코 쉘브론사는 라운드 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PEMEX사와의 제휴에 관심을 보임. 특히 Ali Moshiri 쉘브론 중남미·아프리카 법인 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라운드 원 분석을 통해 가장 경제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 언급

□ 팜 아웃(Farm Out)

- 팜 아웃은 PEMEX가 확보한 탐사 및 채굴권을 민간 회사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시행하는 계약을 의미
- PEMEX가 팜 아웃 계약을 진행할 파트너로 고려 중인 기업은 총 30여개임
 - Shell, British Petroleum, Chevron, Exxon, Statoil, Petrobras, Ecopetrol, Total, Apache, Hess, BHP, Billiton, Lukoi 등
 - 특히 심해 지역 탐사 및 채굴 경험이 풍부한 업체인 Total, Shell, Apache, Exxon, Ecopetro, Chevron 등이 파트너로서 유력함
- 특히 멕시코만(Gulf of Mexico) 심해 지역의 경우, PEMEX는 팜 아웃 계약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상기 회사와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음
- 단기간 내에 PEMEX가 팜 아웃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 A지역 : 성숙지역(Mature Field)
 - B지역 : 해양 중중유(Extra heavy oil)포함 지역
 - C지역 : 심해 거대 천연 가스 유정
 - D지역 : Perdido 유역(Area de perdido)

PEMEX와 팝 아웃 계약을 통해 진행될 프로젝트 지역



구분	지역	면적 (km ²)	Reserve 2P (백만 배럴)	Reserva 3P (백만 배럴)	투자 (USD백만)	가채년수
A	육상유전(Rodador, Ogarrio, Cardenas-Mora)	312.8	247.9	263.6	1,701	5
	해양(Bolontiku, Sinan y EK)	119.4	350.1	497.3	6,330	6
B	Ayatsil-Tekel-Utsil	88.8	746.6	862.5	6,233	10
C	Kunah-Pikils	55.3	211.9	501.6	6,793	10
B	Trion	22.6	-	304.6	8,075	8
	Exploratus	12.9	-	234.4	3,165	8
합계		611.7	1,556.5	2,664.0	32,295	-

※ 자료원 : 멕시코 에너지부 및 외신 종합, 2014

2. 향후 입찰 일정

- 각종 제도 정비 이후, 2015년 상반기(2월 경으로 예상) 라운드 원에 대한 최초 입찰이 시작되며 8월 경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

라운드 원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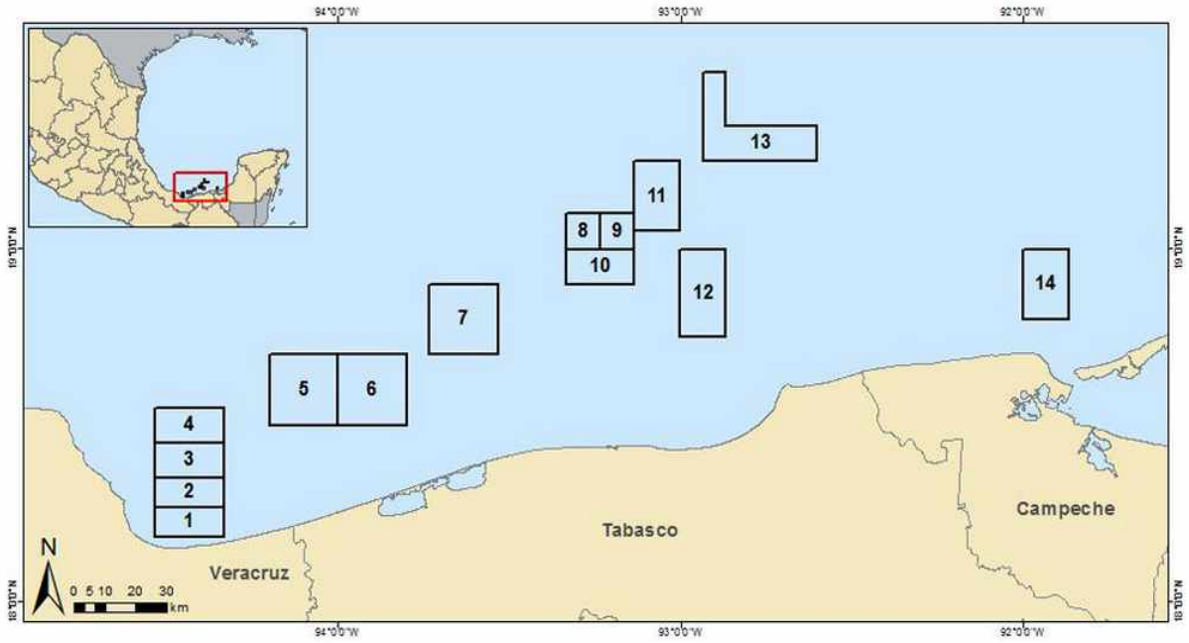


※ 자료원 : 멕시코 에너지부, 2014

※ 주 : CNH(국가탄화수소위원회), SENER(에너지부), SHCP(재무부), CIEP, COPF, CEE

- CNH는 연방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14년 12월 11일 라운드 원에 대한 입찰 자격요건을 발표
 - 이번 입찰은 멕시코만에 위치한 "Cuencas del Sureste" 광구의 14개 지역에 대해 실시될 예정임. 해당 광구는 천해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4,223km², 보유하고 있는 원유의 종류는 경유, 중유, 중중유, 가습가스(Humid Gas)임

라운드 원 1차 발표 광구 : Cuencas del Sureste



※ 자료원 : 국가탄화수소위원회, 2014

IV. 개혁 이후, 우리기업 접근전략

□ 우리기업 진출환경

- 멕시코의 에너지개혁 중에서, 석유 및 전력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동 분야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 및 기자재 납품시장이 멕시코 에너지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석유분야의 주요 개혁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제 등의 다운스트림보다는 탐사/채굴 등 업스트림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혁 이후 우리기업의 단독 진출은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전력분야는 우리기업 주도 컨소시엄이 독립발전사업(IPP) 방식으로 Norte II 사업(한국전력, 삼성물산, 미츠이)을 수주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멕시코 전력시장에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음

□ 석유분야 접근전략

- 석유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는 업스트림에 한정되어 있으며 멕시코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아 실질적으로 업스트림 사업을 공략하기는 어려움이 따름
- 한편, 세계 유력 석유 회사들은 멕시코에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 이들은 멕시코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인지도도 높아 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우선시 됨
 - 특히 스페인 및 미국계 에너지 업체는 멕시코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할 경우 시장 상황 파악을 통해 좀 더 용이하게 멕시코 에너지 시장에 진출 할 수 있음

- 실제로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펙(Sinopec)은 중남미 최대 석유 시장인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 스페인의 렵솔(Repsol)과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자산규모 177억 달러의 중남미 최대 석유 기업으로 부상한 바 있음
- 특히 멕시코의 에너지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언어 및 문화적으로도 낯선 시장이기 때문에, 현지 시장 혹은 이와 유사한 중남미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

□ 전력분야 접근전략

- 전력분야는 석유분야보다 우리 기업이 접근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전망. 특히 전력 분야의 경우, 한국 전력의 열병합발전 프로젝트로 인지도를 얻은 상황이며 멕시코가 필요로 하는 발전 부분은 우리 기업들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분야임
- 개혁 이후에도 독립발전사업(IPP), 자가발전사업, 열병합발전사업, 소형발전사업 등 프로젝트 발주내용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OPF(Obra Publica Financiada, 연방정부 예산사업) 방식 : 멕시코 자국기업 또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우리기업 단독 입찰보다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의 협력업체로 참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독립발전사업) 방식 : CFE 자체 예산외 사업에서 1/5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국제공개입찰로 추진되므로 한국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며 이미 Norte II 프로젝트 수주 사례도 있어, 가장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
- 발전 프로젝트는 건별로 입찰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목표 개별 프로젝트별로 자격요건을 미리 파악하여야 함
 - 주로 회사 규모, 공사실적, 직원규모, 멕시코 로컬제품 조달비율, 장애인 채용비율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음

- 외국기업이 CFE에 기자재 납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벤더 등록이 필요하며
 - 1) CFE 지정양식 및 기타 요구서류를 CFE의 공급자 관리부서(Gerencia de Abastecimientos)에 제출해야 함. 또한 멕시코 법정대리인(필수사항)에 대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납세등록증(RFC)를 관련 기관에 제출. 또한, 이와는 별도로
 - 2) 멕시코 정부통합 조달사이트인 Compranet(compranet.gob.mx)에 등록을 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부문은 자가발전 방식으로 관심업체가 직접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임. 멕시코의 일부 대기업들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마스터 플래너 입장에서 전력 구매대상을 물색하고, 투자자를 확보해서 CFE와 CRE를 대상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등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 내는 것도 진출 방법임

- 멕시코 정부가 향후 2022년까지 추진을 계획하는 주요 발전소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경우, 에너지원으로는 복합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49.2%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 조달은 IPP(독립발전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멕시코 전력 시장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할 것

2014~2022년 추진 예정 주요 발전소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 명	입찰년도	발전원	설치용량 (MW)	재원	프로젝트 예상규모 (USD 백만)
1	Norte III C.C.	2014	복합화력	790	IPP	1,028
2	Noroeste C.C.	2014	복합화력	786	IPP	1,084
3	Noreste C.C.	2014	복합화력	889	IPP	1,473
4	Topolobampo III C.C.	2014	복합화력	680	IPP	921
5	Baja California II C.C.	2014	복합화력	268	IPP	미정
6	Rumorosa I, II, III	2014	풍력	296	IPP	미정
7	Monterrey IV	2015 이후	복합화력	1,088		미정
8	Central Tula	2015 이후	복합화력	1,162		미정
9	Guadalajara I	2015 이후	복합화력	908		미정
10	Mazatlan	2015 이후	복합화력	867		미정
11	Sureste III, IV	2015 이후	풍력	각 304		미정
12	Sureste V, VI	2015 이후	풍력	각 300		미정
13	Paso de la Reina	2015 이후	수력	543		미정
14	Nuevo Guerrero	2015 이후	수력	455		미정
15	Merida	2015 이후	터보가스	169		미정
16	Azufres III	2015 이후	지열	27		미정

※ 자료원 : 국가인프라인프라 프로그램 2014-2018

□ 향후 멕시코 에너지 산업 전망

- 최근 들어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나 멕시코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멕시코의 원유 탐사 및 시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 특히 치콘테펙(Chicontepec) 및 심해유전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
 - * 2014년 12월 12일 기준, 멕시코 혼합유의 수출단가는 53.73 달러를 기록
- 또한 멕시코는 야심차게 추진한 2014년 12월 2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주재 하에 로스 라모네스(Los Ramones) 가스관 1단계 완공식을 거행하며 에너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라모네스 가스관 프로젝트 1단계는 미국 텍사스 주 아구아 dulce(Agua Dulce) 에서부터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 로스 라모네스(Los Ramones) 까지 이어지며 234km의 길이에 10억 입방피트를 공급하게 됨
- 멕시코 정부는 2014년 12월 12일, 라운드 원에 포함되는 멕시코만에 위치한 14개 광구 입찰을 위한 자격 요건을 발표하고 2015년 8월에는 계약을 완료 할 것이라고 언급. 멕시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 개혁을 추진 하는 만큼 우리 기업 역시 멕시코 에너지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시장 진출에 힘써야 할 것임

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경제제재 완화대비,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4.1
14-002	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
14-003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1편 -	2014.3
14-004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2편 -	2014.3
14-005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3편 -	2014.3
14-006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성과 분석	2014.3
14-007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3
14-008	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3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2014.4
14-01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1	2014.4
14-011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2	2014.4
14-012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3	2014.4
14-013	한-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	2014.4
14-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2014.4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4.5
14-016	태국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 및 전망	2014.5
14-017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동향과 시사점	2014.6
14-018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14.6
14-019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접근전략	2014.6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	2014.1
14-002	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2014.2
14-003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2014 중국 경제 전망	2014.2
14-00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3
14-005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분야별·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	2014.4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3	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4.2
14-004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4.2
14-005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환경분야 Q&A	2014.4
14-006	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규대조표	2014.4
14-008	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4.5
14-009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	2014.5
14-010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5
14-011	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	2014.5
14-012	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5
14-013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4.5
14-014	2014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4.5
14-015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014.5
14-016	러시아 에너지시스템 시장 현황	2014.5
14-017	201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4.6
14-018	Global Green Hub Korea 2014 결과보고서	2014.6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2014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4.1
14-002	2014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4.1
14-004	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14.1
14-005	개성공단 입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설명회	2014.3
14-006	韓中服務産業优秀企業投資交流會	2014.3
14-007	중국 개혁개방 2.0시대 -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2014.3
14-008	아프리카 중소형 플랜트 협력 포럼	2014.3
14-009	양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설명회	2014.4
14-010	(서울식품전 연계) 한중 식품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설명회	2014.5
14-011	2014 Global Project Plaza	2014.5
14-012	미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2014.5
14-013	쿠바 투자환경 설명회	2014.5



작성자

- ◆ 멕시코시티무역관 성준화 과장
- ◆ 신흥시장팀 안성희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4-019

멕시코 에너지개혁과 시사점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12월 26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